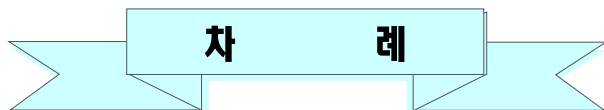


2017년 창원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2017. 12.

창원대학교



I. 자체평가 개요 1

1. 자체평가의 근거 3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3
3. 자체평가의 목적 3
4. 자체평가의 방향 4
5. 자체평가 결과 활용 4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4

II.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5

1. 평가지표 체계 및 방법 7
2. 자체평가의 절차 13
3. 자체평가 추진경과 15
4. 개선사항 16

III. 자체평가 결과 17

- III-1. 평가결과 총괄 19
- III-2. 영역별 평가결과 22
 1. 학생 22
 2. 교원 31
 3. 교육여건 37
 4. 연구 50
 5. 재정 70
 6. 산학협력 81
 7. 국제화여건 103
 8. 기타 115

IV. 종합 및 제언 119

1. 평가성적 분석 121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133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138
4. 17개 공통지표 변화 추이 145

V. 부록 155

1. 지표정의서 157
2. 28개 국립대학 및 유사규모대학과의 비교자료 214

I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의 근거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3. 자체평가의 목적
4. 자체평가의 방향
5.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I.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의 근거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평가)
 -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 ☐ 창원대학교 학칙 제98조(자체평가)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 ☐ 대학 외부평가제도의 중요성 증대
- ☐ 대학 외부평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 대학의 대외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모형 구축 필요
- ☐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 정착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 ☐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3. 자체평가의 목적

- ☐ 내부 자체 진단을 통해 우리대학의 현 수준을 파악하여 지표 값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관리 체제 정착
- ☐ 주요 대외평가 준비 및 정책사업 선정가능성 증대 등 대학의 대외 경쟁력 강화
- ☐ 대학의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여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

4. 자체평가의 방향

- ☐ 주요 대외평가 지표를 평가 준거로 활용하여 대내외평가 및 정책 사업에 대비
- ☐ 주요 외부평가를 포괄하는 통합적 성과지표로 평가항목 개선
- ☐ 타 대학과 비교가능한 대학정보공시의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 ☐ 평가주기별 추세분석 및 비교를 위해 공통지표*를 선정하여 평가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평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수혜율, 교육비 환원율, 연구비 수혜실적 등 17개 지표

5. 자체평가 결과 활용

- ☐ 지표 값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현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 공유에 활용
- ☐ 대학의 학사구조 및 정원조정 개선에 반영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위 원 장	기 획 처 장	동 성 식	
연구부위원장	기 획 부 처 장	이 병 훈	
연 구 팀 장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부교수	신 성 식	
연 구 위 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부교수	장 기 봉	
"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교수	류 시 완	

II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1.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2. 자체평가의 절차
3. 자체평가 추진경과

II. 대학 자체평가 추진체계

1.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 체계

□ 기본 원칙

- 주요 대외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표 활용
- 대학이 노력하여 개선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지표
- 정량적 측정 및 자료 획득이 가능한 지표
-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표

□ 평가지표 구성

- 주요 대외평가 및 정책사업 지표*, 대학정보공시 항목, 2011년 실시 평가 항목 등을 근간으로 현재 시점의 대외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
-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 대학평가, ACE, LINC, CK 등**
- 타 대학과 비교 가능하여 우리대학의 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대학자체평가인 학과평가 및 부서평가 결과 반영 지표

□ 평가지표 체계

- 평가영역은 각각의 영역에서 평가지표로 구분되며, 평가영역은 대학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영역에 해당됨
- 평가지표 체계 : 8개 평가영역, 48개 평가지표
 1. 학 생 : 4개 평가지표
 2. 교 원 : 3개 평가지표
 3. 교육여건 : 7개 평가지표
 4. 연 구 : 10개 평가지표
 5. 재 정 : 5개 평가지표
 6. 산학협력 : 11개 평가지표
 7. 국제화여건 : 6개 평가지표
 8. 기 타 : 2개 평가지표

나. 평가방법

□ 평가대상 기간

- 기준년도 : 2015년, 2016년도
- 단, 평가지표별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표평가 점수 및 등급 부여방법

- 지역중심대학 순위 비교, 전체 국립대학 순위 비교 2가지의 방법으로 지표별 점수를 구함
- 평가지표 별로 5등급 구간으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이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를 취득점수로 하고, 등급 구분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정함
 - 지역중심대학 비교의 경우 : 산출 값이 거점대학*을 제외한 19개 국립대학 순위 기준으로 1위~4위 A등급, 5위~8위 B등급, 9위~12위 C등급, 13위~16위 D등급, 17위~19위 E등급을 부여함
- *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 국립대학 비교의 경우 : 산출 값이 28개 국립대학 순위 기준으로 1위~10위 A등급, 11위~15위 B등급, 16위~20위 C등급, 21위~25위 D등급, 26~28위 E등급을 부여함
- 산출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지표작성의 일관성, 명료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정의서 작성

- 지표정의서는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정의서를 근간으로 작성
- 각종 대학평가에 사용된 기준 지표정의를 준용하여 작성

□ 28개 국립대학 현황

거점국립대학

연번	학교명	비고
1	강릉원주대학교	
2	강원대학교	거점국립대학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	경북대학교	거점국립대학
5	경상대학교	거점국립대학
6	공주대학교	
7	군산대학교	
8	금오공과대학교	
9	목포대학교	
10	목포해양대학교	
11	부경대학교	
12	부산대학교	거점국립대학
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	서울시립대학교	
15	순천대학교	
16	안동대학교	
17	전남대학교	거점국립대학
18	전북대학교	거점국립대학
19	제주대학교	거점국립대학
20	창원대학교	
21	충남대학교	거점국립대학
22	충북대학교	거점국립대학
23	한경대학교	
24	한국교원대학교	
25	한국교통대학교	
26	한밭대학교	
27	한국체육대학교	
28	한국해양대학교	

다.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산식	평가방법	비고
1. 학생	1.신입생증원율	50	정원내 입학자수(명)/정원내 모집인원(명)×100 ※ 정보공시 산식	정량	대학기본역량진단, 기관평가인증
	2.재학생증원율	50	재학생 수/학생정원 학생모집정지인원×100 ※ 정보공시 산식	정량	대학기본역량진단, 기관평가인증 ACE, CK
	3.중도탈락학생비율	30	학부 제적학생수/학부재적생 수×100 ※ 중앙일보평가 산식	정량	중앙일보평가
	4.학부생 비율	20	학부 재학생(명)/학부 재학생수(명)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명) ※ ACE 산식	정량	ACE
소계		150			
2. 교원	5.전임교원확보율	50	전임교원 수(명)/교원배정정원(재학생, 편제정원)(명)×100(%)	정량	대학기본역량진단,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ACE, CK
	6.전임교원인당 학생수	20	학부+대학원 재학생 수/전임교원 수 ※ 중앙일보 산식	정량	중앙일보평가
	7.직원인당 학생수	30	(학부 정원내외+대학원)재학생수(명)/직원수(명)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소계		100			
3. 교육 여건	8.취업률	50	취업자(졸업자(전학사입대학+취업불가증)+외국인 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자)×100 ※ 정보공시 산식	정량	대학기본역량진단,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ACE, LINC
	9.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0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학점)/총 개설 강의학점(학점)×100(%)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대학기본역량진단, 중앙일보평가
	10.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0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 총 개설 강의학점 × 100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11.강의 규모의 적절성	20	0.4×(20명이하규모강의비율)+0.3×(21~50명규모 강의비율)+0.2×(51~100명규모강의비율) +0.1×(101~200명규모강의비율)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대학기본역량진단, 중앙일보평가
	12.소규모강의	10	20명 이하 개설 강좌(수)/총 개설 강좌(수)×100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13.대규모강의	10	101명 이상 개설 강좌(수)/총 개설 강좌(수)×100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14.도서관 연간자료구입 비	20	자료구입비(천원)/(학부 정원 내외+대학원) 재학생수(명) ※ 기관평가인증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평가
소계		150			
4.	15.전임교원 1인당 등재	2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건수)	정량	기관평가인증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 점	지표산식	평가 방법	비고
연구	(후과)지 논문 실적		/전임교원 수(명) ※ 기관평가인중 산식		
	16.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20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건수) /전임교원 수(명) ※ 기관평가인중 산식	정량	기관평가인중, 중앙일보평가
	17.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20	저역서수(건수)/전임교원 수(명) ※ 기관평가인중 산식	정량	
	18. 전임교원 1인당 교과교외 연구비	20	(교내연구비+교과대용자금)(천원)/전임교원수(명) (교외연구비+교과대용자금)(천원)/전임교원수(명) ※ 기관평가인중 산식	정량	
	19. 기술이전 건수	10	기술이전 계약건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중, LINC
	20. 기술이전 수입료	20	기술이전 수입료 ※ 정보공시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중, 중앙일보평가, LINC
	21. 특허특허 출원	10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조사연도에 등록 및 출원된 건 ※ 정보공시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중
	22. 특허특허 등록	10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조사연도에 등록 및 출원된 건 ※ 정보공시 기준	정량	
	23. 특허특허 출원	10	개별 국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정보공시 기준	정량	
	24. 특허특허 등록	10	개별 국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정보공시 기준	정량	
소계		150			
5. 재정	25. 교육비 환원율	50	총 교육비(천원)/등록금수입총액(천원)×100(%)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대학기본역량진단, 기관평가인중, 중앙일보평가, ACE, CK
	26. 장학금 지급률	50	교내외장학금(천원)/등록금수입총액(천원)×100(%) ※교내외장학금및등록금수입총액학부민도 포함 ※교외장학금중국가/지방자치단체장학금은 제외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27. 사립사 강의료 지급 단가	10	(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 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 기관평가인중 산식	정량	
	28. 납입금 비율	20	납입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세입×100 ※ 중앙일보평가 기준	정량	
	29. 기부금 비율	20	기부금 총액(천원)/세입총액(천원)×100 ※ 기관평가인중 기준	정량	
소계		150			
6. 산학협력	30.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10	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활용으로 2016.3.1.~2017.2.28. 기간에 입금된 운영 수익금의 총합. 산학협력단 회계, 교비회계, 국고회계, 기타회계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의 총액 ※ 정보공시 기준	정량	LINC
	3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10	1.0×(채용형 전임교원 수)+0.25×(채용형 비전임교원 수)+0.2×(지정형 전임교원 수) ※ LINC 산식	정량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 점	지표산식	평가 방법	비고
	32.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수	10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중앙일보평가, LINC
	33.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20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34.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비율	10	사업단 참여학과의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대상학생 수×100 ※ 정보공시 기준	정량	
	35. 창업 강좌 수	10	창업 강좌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36. 창업 재정 지원	20	창업동아리 지원 + 학생 창업 기업 지원 + 기타 학생 창업 지원 금액 ※ LINC 기준	정량	LINC
	37. 창업공간지원	10	창업동아리 공간 + 예비창업 전용공간 + 학생창업 기업공간 ※ LINC 기준	정량	
	38. 창업지원인력	10	창업 전담교수 + 창업 전담 행정 인력 ※ LINC 기준	정량	
	39. 교내연구실 산학협력 공동연구 과제 수	20	민간산업체, 연구소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수/전임교원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40. 교내연구실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20	민간산업체, 연구소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비 총액/전임교원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소계		150			
7. 국제 화·여 건	4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50	외국인 전임교원 수/전체 전임교원 수 × 100 ※ 정보공시 기준	정량	CK
	42.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10	{외국인 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100 ※ 중앙일보평가 산식	정량	중앙일보평가
	43. 교환학생 비율	10	{해외 파견 교환학생 수+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재학생 수)×100 ※ 중앙일보평가 산식	정량	
	44. 해외 파견 학생수	30	타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CK
	45.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30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 대학교 학생 수 ※ 정보공시 기준	정량	
	4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20	1-(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전체 유학생 수) × 100 ※ CK 산식	정량	
소계		150			
8. 기타	47. 교사사설화보율	30	기본사설(m)+지원사설(m)+연구사설(m)/기준면적(m) × 100(%) ※ 구조개혁평가 산식	정량	대학기본역량진단, 기관평가인중
	48. 기숙사수용률	20	수용인원(명)/(학부 정원 내외+대학원(주간) 재학생 수(명)×100 ※ 기관평가인중 기준	정량	기관평가인중, 중앙일보평가
소계		50			
합계		100			

2. 자체평가의 절차

우리대학의 자체평가는 (1) 자체평가의 준비단계, (2) 자체평가 자료의 분석 단계, (3) 자체평가 연구보고단계,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별로 자체평가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1 자체평가의 준비단계

우리대학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자체평가 기획위원회는 대학 규정에 의거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본부의 처·국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도서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소속	성명	담당역할
위원장	기획처장	동성식	총괄
위원	교무처장	신동수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설정
위원	학생처장	권광현	"
위원	사무국장	윤병일	"
위원	대학원장	강기정	"
위원	인문대학장	유지애	"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조효래	"
위원	경영대학장	박용일	"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여숙	"
위원	공과대학장	어석홍	"
위원	예술대학장	정유영	"
위원	메카트로닉스대학장	송정일	"
위원	미래융합대학장	구광수	"
위원	도서관장	김도기	"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
- ② 자체평가연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③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대학관리 중점과제의 추진을 총장에게 자문
- ④ 대학구성원들의 자체평가 참여 유도

(2)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단과대학의 교수로 구성하였다. 실무위원으로는 기획평가과 평가팀 직원이 담당하였다.

구분	소속	성명	담당역할
위원장	기획처장	동성식	평가총괄
부위원장	기획부처장	이병훈	평가업무총괄
연구팀장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신성식	평가, 평가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총괄
연구위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장기봉	평가, 평가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류시완	"
실무총괄	기획평가과장	김문락	실무총괄
실무위원(간사)	기획평가과	황승학	자료수집 및 분석자료 작성
실무위원	"	박성용	"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편람의 개발과 연구
- ② 자료수집을 위한 서식개발 및 자료 분석
- ③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집필
- ④ 자체평가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

2.2 자체평가의 실시단계

자체평가는 8개 평가영역별로 해당 영역의 연구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주요 대외평가 및 정책사업 평가지표 분석

둘째, 평가 지표별 관련부서 파악 및 업무 협조 요청

셋째, 자료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정리

넷째, 정보공시 항목 자료 수집 및 정리 <타 국립대학과의 비교표 작성>

다섯째, 평가위원은 각종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2.3 자체평가의 보고단계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자체 개발된 모형(안)을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자체평가모형에 따라 담당영역별로 보고서의 내용을 집필하여 종합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우리대학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에 탑재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대학의 수요자들에게 공시하였다.

2. 4 자체평가의 활용단계

- ☐ 주요 외부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한 자체평가 의해 우리대학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제공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와 지표 값 향상 노력 유도
- ☐ 대학의 자체평가결과를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대학의 자체능력과 장점 홍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수요자들인 학생, 학부모, 기업체 및 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조직에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함

3. 자체평가 추진경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대학자체평가의 진행일정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진행일정 및 과정

일 자	진행일정 및 과정
2017. 11.	○ 2017년 창원대학교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 ○ 자체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팀 구성
2017. 12.	○ 자체평가 모형 의견수렴
	○ 자체평가 기본계획 및 결과활용(안) 심의 :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 자체평가 모형 확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2018. 1.	○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 사이트 탑재 ○ 학내 전부서 배포

※ 참고자료

- ☐ 타대학 비교자료 : 정보공시로 확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 48개 지표
 - 국립대학 : 28개 대학

4. 개선사항

- ☐ 자체평가 실시, 분석, 결과 활용 및 환류의 체계 마련
- ☐ 평가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수정
- ☐ 구성원들의 대외기관의 다양한 평가지표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와 지표 값 향상 노력 유도
- ☐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가 포함된 평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질적 개선 유도

IV

종합 및 제언

1. 평가성적 분석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4. 17개 공통지표 변화 추이

1. 평가 성적 분석

『2017년 창원대학교 자체평가』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은 평가 종료 후에 우리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정책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점은 발전시켜나가고, 약점과 문제점은 보완 개선하여 대학의 발전방향으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향후 우리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는 각 평가 항목별로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우수 : 75점 이상 ▶ 보통 : 50점 이상 75점 미만 ▶ 미흡 : 50점 미만

1) 학생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4	150	136	90.7
19개 지역중심대			112	74.7

○ 학생 관련 평가 지표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학생비율, 학부생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중 학생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에 99.7%에서 2016년에 99.8%로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증가한 추세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도 정원내 모집인원이 1,888명에서 2016년도에는 1,785명으로 감소하였고, 경쟁률은 각각 7.2에서 7.1로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재학생 충원율은 2015년도 117.2%에서 2016년 115.8%로 소폭 감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역시 큰 변화는 없었으며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 간 이동을 대비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중도탈락학생비율은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는 28개 국립대학 비교 순위가 21위, 19개 지역중심대학 비교 순위는 12위로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것이 2017년도 자체평가결과로는 각각 15위, 7위로 상당히 개선된 현황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도에 3.5%와 2016년도에는 3.6%로 과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조사된 각각 4.0%와 3.8%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노력한 결과로 보이며, 조사기간 중에 학내에서 ACE 및 CK 사업 등의 국책사업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 제고와 비교과목 운영을 통한 학생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창원대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이 고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사업단 유치 등을 통해 학내 학생관리시스템(드림캐치시스템)을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사관리 외에 학생취업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생지도상담의 비율을 높여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보인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학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학부생 비율은 2015년도 자체평가에서 조사된 결과와 거의 비슷하거나 미미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7년도 자체평가 기준년도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할 때 학부 재학생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일반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각각 730명, 699명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원 학생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장학제도 개선 및 교육의 질 개선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교원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3	100	46	46.0
19개 지역중심대			50	50.0

○ 교원에 관한 평가 지표로는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직원1인당 학생 수』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교원영역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28개 국립대학 비교 52점에서 46점으로 감소하였고, 19개 지역중심 국립대학 비교 46점에서 50점으로 상승한 평가결과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직원1인당 학생 수의 평가항목의 점수가 크게 하락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년에 비해 2014년도 소폭 증가하였고, 2017년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2015년 67.34%에서 2016년 69.8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8개교 국립대 평균인 77.36%에 비해 우리 학교는 70.8%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도 2017년 자체평가 결과 2014년에 33.0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31.43명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28개교 국립대 평균인 36.8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개교 국립대 평균으로 볼 때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지난 몇 년간에도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교원 확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책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015년도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28개 국립대학 기준으로 각각 11위에서 16위로, 19개 지역 중심대학 기준으로 10위에서 13위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은 31.57명, 2014년은 31.02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5년 44.9명, 2016년 41.86명으로 직원 1인당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증가한 것이고 28개교 국립대 평균인 30.61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직원확보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따라서 직원승진 및 채용과 관련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교육여건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7	150	114	76.0
19개 지역중심대			92	61.3

- 교육여건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강좌 비율, 대규모강좌 비율, 도서관 연간자료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다.
- 취업률은 대학교육의 성과지표 중에서 최종 산출물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2015년도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비교하면(1년: 직전연도 8월과 당해연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대상)기준 2013년도(12.31기준) 54.7%, 2014년도(06.01기준) 54.0%, 2015년도(06.01기준)에는 63.9%로 28개 국립대학 기준으로 A등급인 6위 정도의 수준으로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인 9위 수준보다 상향되어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8개교 국립대학의 평균인 63.48%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많은 대학들이 취업을 제고를 위한 대학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격차가 확연히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창업 등을 위한 효과적이면서 실효성 높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의 경우 2015년도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 19개 지역중심대학의 평균 74%에 못 미치는 69.5%에 그치는 낮은 수준에서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 2016년 기준 19개 지역중심대학과 28개 국립대 경우에 각각 평균 63.55%와 64.22% 보다 낮은 수준인 60.3%로 순위 역시 각각 10위에서 15위로,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한 실정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임교원확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학교의 경우는 국립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낮은 전임교원확보율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임교원확보율이 조금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전임교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선결조건으로서 해결되어져야만 전임교원 강의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낮추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의 경우 2015년과 2017년 자체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2016년 기준 19개 지역중심대학의 경우는 평균 36.88%에 비해 39.7%로 높은 수준이며, 28개 국립대 경우에도 평균 37.8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순위도 각각 10위에서 14위로, 14위에서 18위로 하락하였다.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단과대학별로 교육과정을 다시금 조정하거나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체 강좌 수에 대한 소규모 강좌 비율은 2013년도에 32.5%에서 2014년 32.5%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6년도에 36.1%로 19개 지역 중심대학 및 28개 국립대학 평균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까지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에서도 각각 7위와 12위로 2015년 자체평가 결과와 비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체 강좌 수에 대한 대규모 강좌 비율은 2013년도에 1.5%, 2014년도 1.6%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학교 평균이 0.98%로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2015년 101명을 초과하는 대단위 강좌 수는 53강좌에서 2016년 31강좌로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지만 국립대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여타 국립대학에 비해 대규모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과별로 정원 및 현원에 맞는 강의규모를 산정하여 개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공 및 교양 교육 과정개편을 통한 개설 강좌 수를 검토하는 필요한 시점이다. 강의료 부담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101명을 초과하는 강좌는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와 교수 학습의 질을 위해서 강의규모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생 1인당 도서관 연간자료구입비는 우리대학 2015년도 79.7천원, 2016년도 77.0천원으로, 28개 국립대학 기준으로 현재 17위 정도의 수준이며, 19개 지역 중심대학에서는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대학 총예산 중에서 연간자료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개 국립대학 평균인 1.0% 및 19개 지역 중심대학 평균인 0.88%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순위가 낮은 원인은 순위기준 등급점수대가 우수에 해당하는 상위그룹과는 편차가 매우 크고 보통에 해당하는 중간그룹의 경우는 거의 변별력이 없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그룹에 포함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도서관 활용율을 높이고 교원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예산확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연구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10	150	102	68.0
19개 지역중심대			98	65.3

○ 연구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 SCI급 논문실적, 저역서 실적, 교내외 연구비, 기술이전 건수 · 수입료, 국내외 특허 출원 · 등록 건수』로 구성되어 있다.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실적의 경우, 우리 대학의 2015년도와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0.63건과 0.63건으로 동일했고,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0.64건과 0.65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개 국립대의 순위는 14위로 변동사항이 없었고, 다만 19개 지역 중심대학 중에서는 과거 자체평가 기간의 순위 11위에서 8위로 소폭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실적이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순위가 소폭 상승한 원인은 타 대학의 실적 하락으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국립대의 평균 0.65건 보다는 높은 상위권 순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구비 증액이나 교수업적관리평가의 등급 조정, 승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나 우수 논문 연구실적의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의 경우, 우리 대학의 2015년도와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0.2건과 0.2건으로 동일했고,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0.22건과 0.21건으로 소폭 감소함으로써 28개 국립대의 순위는 17위에서 22위로, 19개 지역 중심대학 중에서는 과거 자체평가 기간의 순위 8위에서 13위로 크게 순위가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립대 평균인 0.33%에 못 미치는 0.22% 수준으로 하위권이지만 중간그룹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변별력이 없는 것이 하위 순위로 나타난 원인으로 판단되지만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SCI급 논문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신입교원의 공채 자격요건 강화나 승진에 필수적인 실적비율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인 부분과 인

센터브 형태의 SCI논문 실적을 동요하는 연구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2013년도 0.13건, 2014년도 0.08건에 비해 2015년도 0.13건, 2016년 0.16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순위는 19개 지역 중심대학과 28개 국립대학 중에서 각각 5위와 8위를 나타냈다. 이는 과거 2015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고 전체 평균과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저역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확대와 같은 제도적인 방안도 필요하지만 전공의 경계가 모호한 저역서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저역서의 수준 향상을 올리고 수준미달의 저역서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교내·외 연구비 실적의 경우, 28개교 국립대학 평균 75,624천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평균 66,588천원에 비교하면 우리 대학은 53,822천원으로 순위가 각각 24위와 13위 수준이다. 또한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늘어났으나, 국립대 평균과 비교하면 하위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교내·외 연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대학의 강점을 살린 정부정책 과제나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연구과제 수탁실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실적은 2015년도에 국내 특허출원 70건, 등록 52건, 해외 특허의 경우 출원 10건, 등록 2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국내특허 출원 81건, 등록 48건, 해외특허 출원 7건, 등록 2건으로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 항목에서 증가한 실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타 국립대학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특허 국내 특허 출원의 경우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순위도 상당히 하락한 실정이다. 과거 2015년 자체평가 결과 국외특허 등록이 최근 2년간 0건으로 개선이 시급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특허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술이전 건수/수입료 또한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016년도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수에 비례하였을 때 수입료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체 국립대 기술이전 수입료 평균인 621,375천원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여건 조성 및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재정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5	150	120	80.0
19개 지역중심대			94	62.7

- 재정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납입금 비율, 기부금비율』로 구성 되어있다.
- 교육비 환원율은 2015년에 286.7천원 비해 2016년에 34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우리 대학의 기준연도 2015년도 평균과 타 국립대 평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증가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대학의 발전 기금이 2016년도에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속적인 발전기금의 확대에 이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연도의 결과는 타 국립대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1년 사이에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교육비 환원율이 전체 국립대 평균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입학정원의 감소로 인한 학교 총 예산의 감소부분을 행정부서의 예산 감축으로 충당하는 노력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산학협력단 회계 증액 등의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 장학금 지급률은 타 국립대학의 평균인 20.73% 보다는 조금 높은 2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타 국립대와 비교하면 상위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총계는 감소했지만 우수 장학금이나 대학회계에서 등록금 수입총액 대비 장학금 수혜금액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내실있는 장학금 수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장학금 지급률의 향상을 위해 꾸준한 대외장학금 확보 및 교육부 정책 사업 유치로 사업비 확보가 장학금 수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국립대 평균에 비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016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가 상승함으로서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순위보다는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인 중에는 우리대학의 시간강사 중 2등급(전업 시간강사 이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등급 강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시급히 요청되지만 장기적으로 강사등급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납입금 비율은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산정 방법의 차이와 대학회계 예산항목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하락 요인의 발생이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은 타 국립대 평균인 57.24%에 못 미치는 63.01%로 전체 국립대 중에서 22위로 하위권에 해당되는 실정이다.
- 기부금 비율은 세입총액대비 2015년에 1.23%에서 2016년에는 1.02%로 비율이 떨어졌고 타 국립대학의 평균인 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입학정원 감소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로의 봉사와 협조가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부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역사회·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확보와 대학의 지식기부 노력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산학협력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11	150	142	94.7
19개 지역중심대			134	89.3

- 산학협력에 관한 평가지표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원 비율,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창업 강좌 수/재정지원/공간지원/지원인력,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공동연구비』로 구성되어 있다.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은 타 국립대 평균인 574,973.240천원과 비교하면 우리 대학은 717,742천원으로 2015년 자체평가 결과와 비슷한 수준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의 경우에도 28개 국립대 평균인 17.33명 보다 높은 29.25명으로 나타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비전임 비율이 2015년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실정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원 비율은 28개교 국립대 평균인 69.60명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순위가 다소 하락된 실정이다. 2015년도와 비교하면 2016년도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력이 상당히 증가됨을 나타내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나 재정확보 측면과 업무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등 학생 중심의 산학협력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현장실습의 경우는 28개교 국립대 평균 5.83% 보다 높은 8.19%를 유지하고 있으며,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도 28개교 국립대 평균 10.27%보다 높은 18.62%를 나타내고 있다. 순위 역시 각각 5위와 4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LINC 비참여 학교의 경우는 공시자료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정량지표 비교에 의한 순위를 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 ACE사업단에서도 LINC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캡스톤디자인과 차별성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데 보다 새로운 형태의 캡스톤디자인을 개발하여 학생참여를 적극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창업 강좌 수는 2015년도에 교양과 전공과목에서 이론형과 실습형 모두를 포함하여 28개에서 2016년도에는 35개로 대폭 증가하였고, 창업동아리와 창업교육센터 및 비정규교과목으로 운영하는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등이 활발히 운영되어 2015년 자체평가 기간의 결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순위 역시 28개 국립대학 중 2위의 최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외부전문가 초청 및 학년별 맞춤형 창업 교육을 통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 창업 재정 지원은 2015년에 비해 2016년 현저히 증가한 상황으로 창업선도대학사업 유치로 정부지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에서는 과거 22위에서 7위로 순위가 상당히 높아졌으나 28개교 국립대학 중에서는 14위로 나타났고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아직까지는 타 국립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다양한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과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등 정부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와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항목은 28개교 국립대학 평균에 비슷하거나 약간 미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순위로 보

면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의 경우 상위권대학과의 금액에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수의 역할과 노력이 요구된다.

7) 국제화여건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6	100	74	74.0
19개 지역중심대			72	72.0

- 국제화여건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교환학생 비율, 해외 파견/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2013년 2명에서 2014는 1명으로 줄었고, 다시 2016년 현재 2명으로 우리 대학 전체 전임교원 수 333명에 대한 0.6%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립대 평균인 1.0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및 교환학생 비율은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환학생의 경우 전체 국립대 평균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해외파견 학생 수 역시 조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전체 국립대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항목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였다. 전체 국립대 평균인 33.17개에 비해 우리 대학이 34.9개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다양한 해외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국제화 여건 조성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나타내기 힘든 항목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발굴을 통한 높은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국제화여건 영역은 평가지표 전반의 결과로 볼 때 대체로 중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의 국제화 역량수준은 타 대학의 글로벌 역량강화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낮은 수준으로 지표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질적인 관리로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문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8) 기타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2	50	50	100.0
19개 지역중심대			46	92.0

- 기타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교사시설확보율, 기숙사수용률』로 구성되어 있다.
- 교사시설확보율은 타 국립대와 비교해 평균 수준으로 과거 2015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에 비해 2017년 자체평가 결과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평균은 145.1%로 2015년보다 2016년에 교사시설확보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하락한 적은 타 국립대의 교사시설확보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 반사효과로 보인다. 상위권 수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숙사수용률은 2015년에 비해 2016년 소폭 증가하였고 수용가능인원의 변동이 없었으나 기숙사 수용률의 증가로 인해 개선된 상황이다. 28개 국립대 평균인 24.76%보다 높은 26.2%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중심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지만 우리대학 실정에 맞는 기숙사 공간 활용과 운영 그리고 실질적인 학생생활 공간으로서의 개선방안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1) 평가결과 종합분석 (SWOT)

○ 내부 강점요인

- 전체적인 영역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학생비율, 학부생 비율, 취업률,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강좌 비율,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기술이전 건수,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기부금 비율, 창업지원인력,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교사시설확보율 등의 평가지표에서 28개교 국립대 및 19개 지역 중심대학 평균과 비교했을 때 평균에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중위권 순위를 나타냈으며,
- 특히 재학생 충원율, 소규모강좌 비율, 장학금 지급률, 산학협력 영역에서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 비율,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캡스톤 이수학생 비율, 창업 강좌 수, 창업공간지원,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기타 영역에서 기술사수용률 등의 평가지표에서는 28개교 국립대 및 19개 지역 중심대학 평균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대학의 강점으로 판단됨
- 교수의 연구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국립대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 국제발간 일반 학술지 논문 실적의 경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산학협력 영역 중 창업 강좌 수,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창업공간지원 등의 평가지표는 전국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도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대학의 2015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증가를 나타낸 항목으로 창업선도대학사업 유치로 인한 내부적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재학생 충원율과 중도탈락학생비율은 과거 2015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개선된 항목으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장학금 지급률과 국제화 여건 항목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평가지표의 경우도 비교년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실적을 나타냄

○ 내부 약점요인

- 전체적인 영역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직원1인당 학생 수 등 교원영역 평가결과가 28개교 국립대 및 19개 지역 중심대학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순위도 하위권으로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교육여건 영역 중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대규모 강의, 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 평가지표의 점수가 저조하거나 28개교 국립대 및 19개 지역 중심대학 평균 이하로 조사됨
- 연구영역 중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의 하락과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는 전국 국립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순위도 최하위 수준이어서 약점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외도 기술이전 수입료,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국립대학 중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국외특허 출원과 등록 항목에서 2015년 우리 대학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소폭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평가됨
- 산학협력영역 중 창업에 관한 여건 중에서 창업 재정지원은 2015년 우리 대학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순위는 상승되었으나 전국 국립대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타 대학의 창업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파견 학생 수,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등 국제화 여건 영역이 타 국립대학에 비해 저조한 편이고,
- 교육비 환원율과 특히 납입금 비율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순위가 하락하여 약점요인으로 평가됨

○ 대외환경 기회요인

-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지역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발전기금 유치 실적이 개선되어 기부금 비율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율도 개선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며,
-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가 소폭 상승하여 전국 국립대학 중 순위가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는 전국 국립대의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대외환경 위협요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크게 감소하고 입학재원이 크게 감소하여 대학회계의 건실한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외연구비 수혜실적이 국립대학 중 최하위수준인 24위로 2015년에 비해서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며, 시급한 대책마련과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지원 실적 중에서 납입금 비율 역시 최하위 수준인 22위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대학의 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평가결과 활용계획

○ 내부강점- 대외기회요소의 활용계획

- 산학협력 영역 중에서 학생 취업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생에 대한 평가항목 특히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과 창업 강좌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으로 대외지표를 유지·강화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등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므로 교수 연구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산업을 연계한 대외협력 강화로 연계지표의 상승 유도 및 대학 경쟁력 향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하기 위한 발전기금의 유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감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및 타 대학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 사업 추진과 향후 단계적 통합 또는 연합모형에 대비한 전조적인 가능성을 모색함

○ 내부약점-대외기회요소의 활용계획

- 교사시설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학생에게 쾌적한 교육 분위기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중도 탈락학생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내 구성원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

함으로서 연대감과 책임의식을 공유함

-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장학금 수혜확대 및 기숙사 수용을 확보, 도서관 자료 확충 등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강사 강의로 지급단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을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 대학과 여타 국립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나타난 국제화 평가항목 중에서,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과전 학생 수,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등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화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내부역량강화를 통하여 외부지표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외부 평판도 관리 및 지자체와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발전기금 유치 확충에 기여함

○ 내부강점-대외위협요소의 활용계획

- 지속적인 취업률의 향상으로 순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대학과의 평균치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타 국립대학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우리 대학의 지역적인 특성을 적극 활용한 취업률 제고 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취업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및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개편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단과대학별 관리를 통하여 재학생의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은 타 국립대학에 비해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연구 실적 향상을 위한 지원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우리 대학의 자구책 마련과 교내·외 연구비 수혜실적 감소의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내부약점-대외위협요소의 활용계획

- 재정확충 방안 마련 및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적절한 운용을 통한 학생복지 개

선을 위한 투자에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 확보와 교육지원 확대가 필요함

- 전임교원 연구실적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량적 지표 향상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 성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 대책을 수립하여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학생 수와 개설교과목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 대학들과의 실질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해외 파견 학생 수를 확대해 나가고 해외 진출 산업체와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연수 및 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발굴 등 교류협력 연계 강화가 필요함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1) 평가지표 영역별 개선사항

○ 학생 영역

- 학생 영역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학생 비율, 학부생 비율』 4가지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이 중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에 조사된 자체평가 결과와 2017년 조사된 바를 비교했을 때, 다소 상승하였으며, 전체 국립대학 중에서 순위도 조금 올라간 상황임
- 특히 중도탈락학생비율은 2015년에 조사된 결과에 비해 현재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고, 28개교 국립대 및 19개 지역 중심대학 중에서는 각각 15위와 7위로 나타났으며 지표값도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에 신입생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행정적인 학사관리 이외에 학생상담제도 및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적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학생의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대학 교육과정의 최종 산출물로 평가받는 취업을 제고를 위한 교과과정 다양성 확대, 강의규모의 적절성 확보 및 창업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
- 재학생 충원율은 우리 대학의 경우 타 국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부생 비율은 전체 국립대 평균 수준으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학모집정원 자체가 축소된 영향으로 인해 조금 하락하는 추세로 보임
-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던 평가지표의 경우도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 유치와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학생비율, 학부생 비율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교원 영역

- 교원 영역은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직원1인당 학생 수』 3가지

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교원 영역은 전체적으로 타 국립대 전체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평가결과가 조사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내실화를 기할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인 교원 임용 및 승진관리규정이 보완·개선되어야 함
-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는 전국 국립대 중에서 비교했을 때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평가지표로 판단됨
- 지속적인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임과 동시에 관련된 평가지표인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한 임용관리규정 보완·개정 및 승진규정의 절차 간소화 및 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 영역을 평가하는 교수업적관리평가규정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여건 영역

- 교육여건은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강의 규모의 적절성, 소규모강좌 비율, 대규모강좌 비율, 도서관 연간자료 구입비』 7가지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교육여건은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2017년도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결과가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타 국립대의 지표가 향상된 상황으로 판단되어 전국 국립대의 전체 평균에 미달되는 결과를 보임
- 취업률과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강좌 비율은 계속해서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소폭 감소한 결과가 나타남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2015년 자체평가 결과보다 순위가 많이 떨어져서 각각 전체 국립대 중에서 20위와 18위의 하위 수준으로 타 국립대학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연계된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의 하락이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로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높여가고 더불어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강좌 비율은 타 국립대학에 비해 높게 평가된 반면 대규모강좌 비율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학과 단위의 학생수를 고려한 강의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대규모 강좌가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교과목을 제외한 그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1,2학기로 나누어 개설하여 수강인원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평가지표 값을 향상과 더불어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 영역

- 연구 영역은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SCI급 논문 실적, 저역서 실적, 교내외 연구비, 기술이전건수 및 수입료,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 10가지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연구 영역 중에서 전임교원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전임교원1인당 저역서 실적, 기술이전 건수 등의 평가지표는 2015년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결과와 비슷하거나 조금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지만, 전임교원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의 경우 전체 국립대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함
- 연구 실적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SCI/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지원증대를 위한 재원확보와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시에도 주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실적을 부여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학술지 게재료 지원 등의 교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타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중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특허출원/등록 실적 및 교외연구비 수혜실적 향상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수업적관리평가의 평가점수를 제검토하여 연구 실적과 관련한 대외 평가지표를 향상시키도록 대책이 필요함

○ 재정 영역

- 재정 영역은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납입금 비율, 기부금 비율』 5가지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조사된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7년도 자체평가 해

당 평가지표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음

- 전국 국립대 평균과 비교해도 상위권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부금 비율의 상승과 관련된 결과로 판단되며, 학생 복지와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함
- 교육비 환원율은 2015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해도 개선되지 못하고 더 하락한 상황이라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비 환원율의 경우는 우리 대학 수준이 전국 국립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과거보다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거시적인 측면에서 총교육비를 높여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는 방안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2015년도 자체평가와 비교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나 전국 국립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요구됨
- 국립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를 개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전임강사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산학협력 영역

- 산학협력영역은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 비율,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창업 강좌수, 창업 재정지원, 창업공간지원, 창업지원인력,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11가지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산학협력 영역의 배점 150점 중 28개 국립대학 비교 취득점수 144점, 19개 지역중심 국립대학 취득점수 13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산학협력 영역 평가지표 중에서 창업지원인력 평가지표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평가지표 값이 최고점수를 취득하고 있어 우리 대학이 해당 영역에서 상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됨
- 과거 LINC사업에서만 지원하던 것이 창업선도대학사업과 일부 ACE사업 선정에 기인하여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서 더 향상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과거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비교해도 상당히 개선되어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

학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해당 영역의 지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창업지원인력이 전국 국립대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LINC사업이나 창업선도대학사업기간에는 어느 정도 창업지원인력에 대한 보강과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화역전 영역

- 국제화역전 영역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교환학생 비율, 해외 파견 학생 수,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6가지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우리 대학의 국제화역전 영역은 전반적으로 전국 국립대 평균 수준보다 낮게 평가되었음
- 외국인 전임교원의 경우 하위권 수준에서 개선된 사항이 없었으며,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이 비율은 전국 국립대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순위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남
- 교환학생 비율은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 순위보다는 조금 상향되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의 평가지표는 상당히 개선되어 전국 국립대 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 순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이 개선됨으로서 향후 우리 대학에서 유치하는 외국인의 지역 분포가 확대되어 대학 간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타 대학과 차별적이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국제화 역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 결과가 나타나 우리대학의 약점으로 판단되는 국제화역전 영역은 대외평가지표의 중요한 영역으로 향후 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우리대학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 기타 영역

- 기타영역은 『교사시설확보율, 기숙사수용률』 2가지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대학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로는 우리 대학의 교사시설확보율이 타 국립대학과 비교 시 높게 평가되었지만 2017년 자체평가 결과에 의하면 순위가 많이 하락하여 중위권으로 낮아졌음
- 반면 기숙사 수용률은 오히려 과거 평가결과 보다 개선되어 순위가 올라간 결과를 나타냄
- 이는 입학정원의 감소의 영향도 있겠으나 학교차원의 노력에서 기인한 기숙사 신축 건설 재원의 확보가 실질적인 수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대학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효과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요구됨

2) 자체평가결과 활용계획

- 최근 대학의 자체평가가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공신력이 높은 공시자료들을 근거한 대외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대학의 실정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조사함
- 정확한 분석과 비교를 위해 분석할 평가지표는 공통 지표위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고, 28개 전국 국립대학과 19개 지역중심대학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함
- 지표 모형개발 및 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부역량의 강점 및 약점과 대외환경의 위협과 기회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 요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정리함
- 2015년도 개발한 지표와 통일성을 기하여 2017년 지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비교 결과 및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자체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외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비한 사전 진단의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지표 값 향상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내부역량과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우리 대학의 평가지표 변화 추이가 28개교 국립대학 및 19개 지역 중심대학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지속적 관찰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자체평가 결과를 통하여

- 분석하여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전체 또는 사안별로 교내에 전파·공유하고, 해당 관련 부서와 단대별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
- 영역별 자체진단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라고 대학의 대외경쟁력강화 및 대학 발전을 견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 대학의 자체평가결과 공시를 통하여 교육수요자에게 대학의 정확한 정보 제공함
 - 자체평가 결과 공시를 통하여 현재 우리 대학의 실정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우리 대학의 강점을 살린 경쟁력 수준과 대학의 역량강화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함
 - 동시에 대학의 교육수요자들인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개선·향상시키고 우수 신입생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인적자원 확보에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지표 관련부서의 지표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도모
 - 약점으로 평가된 취약지표 및 평균 이하의 미흡한 지표향상을 위한 관련부서의 목표설정과 추진전략 제시
 - 당해연도 평가결과는 반드시 차기 평가 시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향상정도와 전국 국립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장단기적으로 지표향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 방안 모색
- 향후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관련 부서나 단과대학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부합되도록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대외평가와는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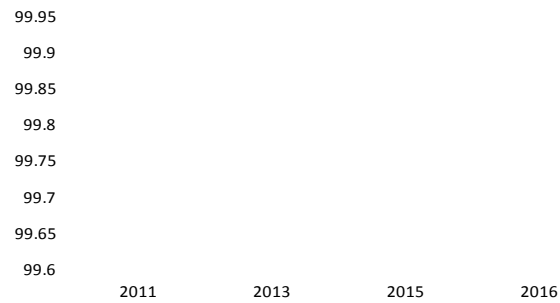


4. 17개 공통지표 변화 추이

1) 신입생 충원율(%)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신입생 충원율	99.89	99.84	99.7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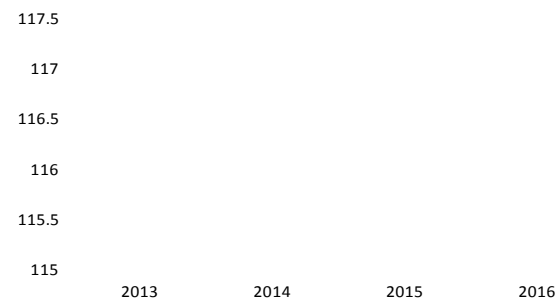
신입생충원율(%)



2) 재학생 충원율(%)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재학생 충원율	116.13	117.2	117.2	1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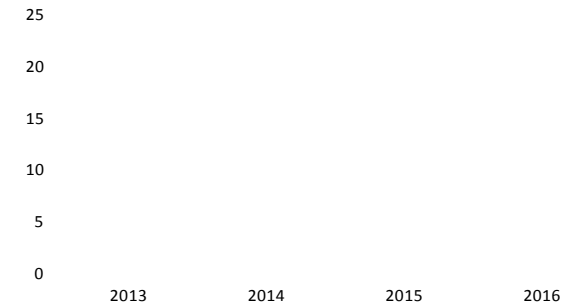
재학생충원율(%)



3) 장학금 수혜율(%)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장학금 수혜율	16.42	20.78	19.3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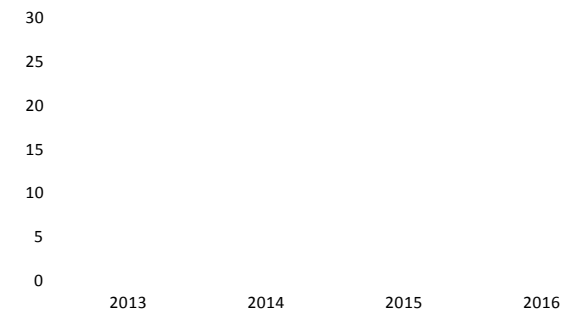
장학금 수혜율(%)



4) 기숙사 수용률(%)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숙사 수용률	20.3	19.9	25.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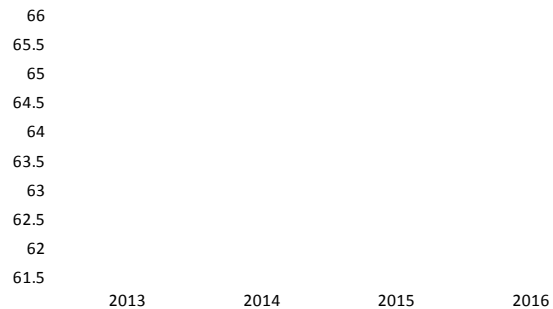
기숙사 수용률(%)



5) 취업률(%)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숙사 수용률	65.7	63.2	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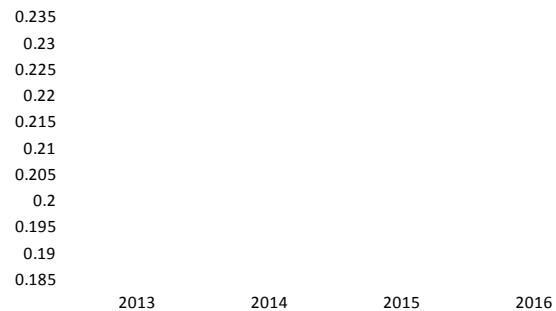
취업률(%)



6) 국외학술지 논문게재 실적(건)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외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0.2	0.2	0.23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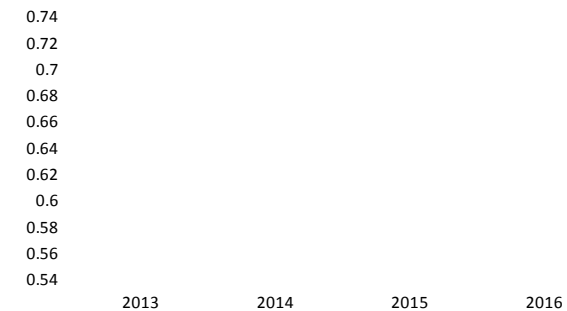
국외학술지 논문게재실적(건)



7) 국내학술지 논문게재 실적(건)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0.6	0.63	0.71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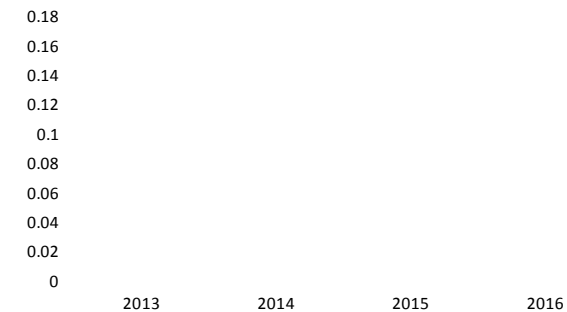
국내학술지 논문게재실적(건)



8) 저역서 실적(%)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저역서 실적	0.1	0.08	0.13	0.16

저역서실적(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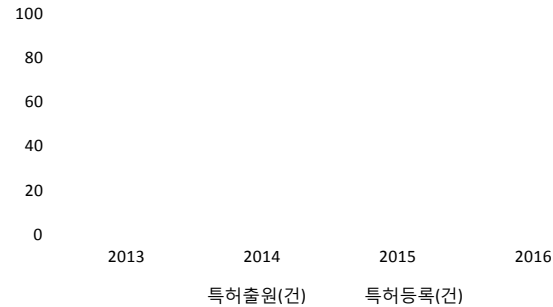




9) 특허 출원/등록(건)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허 출원/등록	60/81	86/54	70/52	8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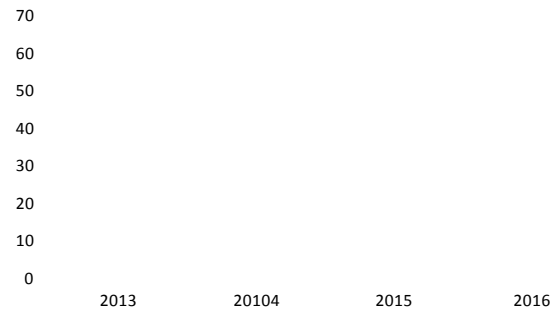
특허 출원/등록(건)



10-1) 기술이전 건수(건)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술이전 건수	10	30	4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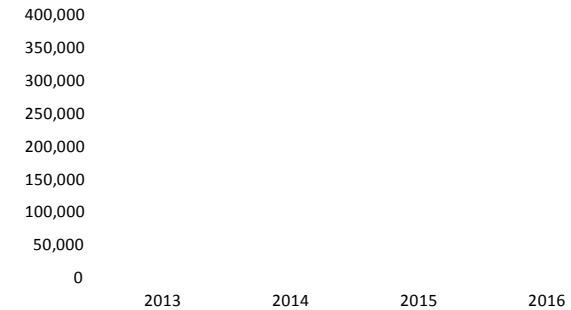
기술이전 건수(건)



10-2)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술이전 수입료	39,000	314,190	326,919	369,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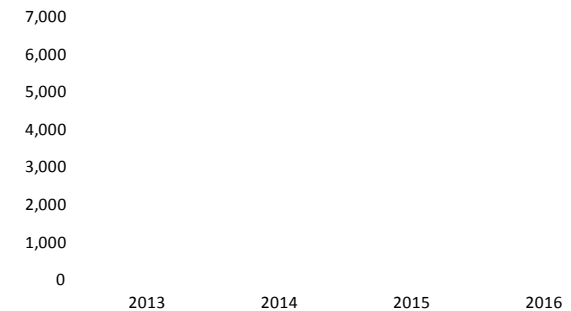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11) 교내연구비 수혜실적(천원)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내연구비	4,517	4,408	6,392	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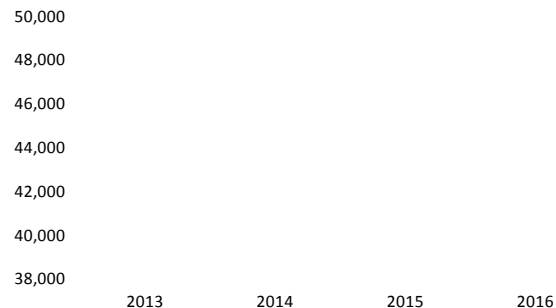
교내연구비 수혜실적(천원)



12) 교외연구비 수혜실적(천원)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외연구비	43,841	48,494	47,430	41,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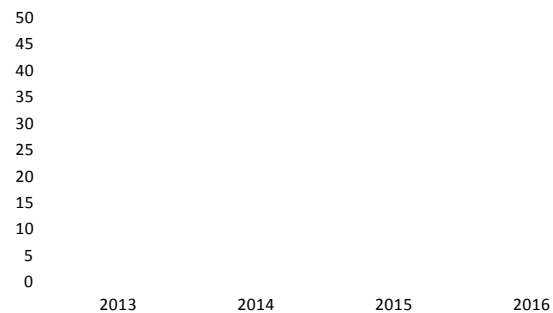
교외연구비 수혜실적(천원)



13) 직원1인당 학생 수(명)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직원1인당 학생수	35.9	31.02	44.9	4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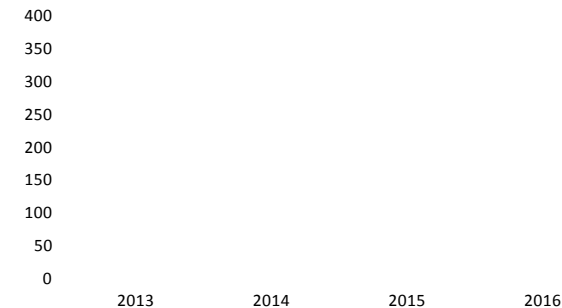
직원1인당 학생수(명)



14) 교육비 환원율(%)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육비 환원율	259.13	292.1	286.7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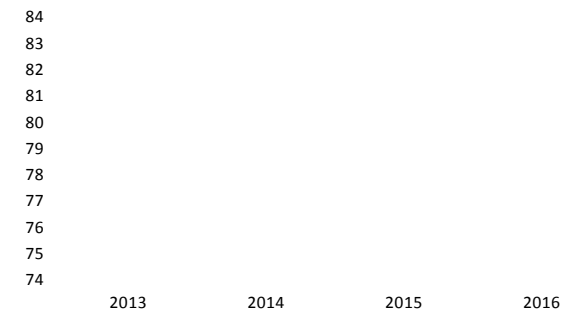
교육비 환원율(%)



15) 도서구입 지원비(천원)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도서구입 지원비	82.74	81.2	79.7	77

도서구입 지원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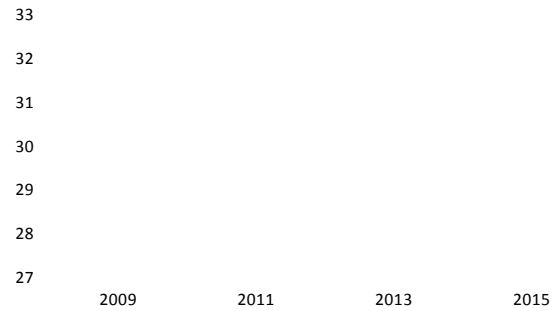




16) 소규모강좌 비율(%)

평가년도 평가지표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소규모강좌 비율	31.71	31.87	29.1	32.5

소규모강좌비율(%)



17) 전임교원 확보율(%)

평가년도 평가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편제정원 기준	66.11	69.5	69.89	70.85
재학생 기준	63.31	66.4	67.34	69.81

전임교원 확보율(%)

